

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행에 대한 탐방객 의식 조사

A Survey on the Visitor's Cognition of Visitor-Reservation System in National Park

이주수^{1*} · 김용근² · 조중현¹

¹서울시립대 조경학과 대학원 · ²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I. 연구목적

매년 증가하는 여가 휴양인구에 비해 한정된 야외 휴양지는 사람들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용력의 범위를 벗어난 휴양인구의 증가와 탐방객 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자연경관의 훼손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외휴양지의 대표적 장소로 인식되어온 국립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을 위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민감한 자연자원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의 심각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가을 단풍철 성수기에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수가 수용력의 몇 배를 초과한 과도한 이용으로 등산로의 노면침식, 노폭의 확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국립공원 이용객들에 대한 부분적인 이용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탐방객 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되어온 제도가 '탐방예약제'이다. 따라서, 탐방객의 급증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탐방활동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국립공원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 새롭게 시도된 '탐방예약제'의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탐방예약제'와 그동안 추진되어온 탐방객 관리방안에 대해 설악산 국립공원 탐방객들이 지닌 의식과 태도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이용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탐방예약제의 운영에 대한 탐방객들의 의식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탐방예약제가 실시되었던 설악산 국립

공원을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조사기간 내 설악산 국립공원을 이용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총 17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활용가능한 유효표본은 165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탐방예약제 시행에 대한 인식

(1) 탐방예약제 인지여부와 도입에 대한 의견

탐방예약제가 2001년 10월과 2002년 10월에 시행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경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고, 6.1%는 기타 인터넷 사이트, 3.6%는 TV/라디오, 9.1%는 현수막 및 안내판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응답자 가운데 22.4%는 탐방예약제의 시행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수기(10월)에 탐방객의 인원을 제한하여 예약자에 한해 입장을 허락하는 탐방예약제의 시행에 대해 응답자의 27.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43.1%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2) 예약에 대한 인식 및 불법이용객의 증가

응답자의 48.5%가 일반인들의 예약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 탐방예약제의 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21.3%가 일반인들의 예약제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여 탐방예약제의 정착이 용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규제 및 정보제공

현재 국립공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탐방객들의 탐방 활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탐방객의 인원을 제한하는 탐방예약제의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41.8%가 '관리공단 측의 규제와 통제에 구속받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3.6%만이 관리공단의 규제와 통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77.5%가 탐방예약제의 도입과 그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탐방객들의 이해를 위해 탐방예약제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탐방예약제의 확대 시행 및 페널티 제도 도입

탐방예약제는 한계령~중청 구간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이 구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탐방객들이 인근의 오색지역과 장수대 지역을 이용함에 따라 탐방객 집중현상이 발생하여 등산로의 추가적인 훼손이 야기될 수 있으며, 탐방로 1곳에서 예약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자연자원의 보존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탐방예약제의 구간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35.1%가 탐방예약제의 구간 확대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30.9%의 응답자는 탐방예약제 구간의 확대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

냄으로써 탐방예약제의 확대는 시급히 추진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탐방예약제의 원활한 운영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약 불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4%가 페널티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26.1%가 페널티 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국립공원 탐방객 관리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탐방예약제의 도입과 운영, 더 나아가 국립공원 관리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립공원 관리에서 시급한 문제는 특정시기, 특정장소에 이용객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훼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대표적 야외 휴양지로서 지속적인 이용 또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적인 탐방객 관리방안의 하나인 탐방예약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탐방객 규제 적용에 있어 직접적인 관리는 이용자의 선택이 제한되며, 그로 인해 이용자가 기대하는 경험과 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탐방객 규제의 관리기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용자들의 선택 자유를 제한하여 얻어지는 편익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탐방예약제의 원활한 운영과 탐방객들의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탐방객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 등의 간접적인 관리기법을 병행하여 직접적인 관리규제의 적용으로 인한 이용규제의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경험에 우호적이고 그들의 욕구에 상응할 수 있는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